

전남 기초단체장 최대 격전지 당선자

안철수계 공천 받아 무소속 현직 단체장 놀리

주철현 여수시장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 계열로 분류되는 주철현 전 광주지검장이 여수시장에 당선됐다.

안 공동대표의 처가인 여수지역에서는 현 시장인 무소속 김중석 후보와 주철현 후보가 선거 기간 내내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선거 기간 동안 20%가량으로 파악됐던 부동층이 압도적으로 '안철수 바람'을 선택하면서 주 후보의 느긋한 승리가 가능해졌다.

주 당선자는 "함께 경쟁했던 타 후보의 공약 중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이 분들을 지지한 시민들의 뜻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면서 "내편, 내편 가르지 않고 30만 여수시민 모두를 하나로 포용하여 함께 손잡고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 "사심을 버리고, 포용과 대승의 정신으로 공평무사한 행정을 펼치고, 갈등과 대립보다는 협력과 조정의 방법으로 시장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주철현 여수시장 당선자(오른쪽)와 부인 김미리씨.

3선 노린 현역과 막판까지 명승부

전동평 영암군수

영암군수 선거에서도 안철수의 사람인 전동평 전 일파중공업 사장이 당선됐다.

전동평 후보와 현 군수인 무소속 김일태 후보가 막판까지 조박빙 경합을 벌였다. 일부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 이들 후보는 1%포인트의 차이를 보이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명승부를 펼쳤다.

선거 운동이 막바지에 임하던 김일태 후보에 대한 '3선 저지' 분위기가 팽배했고, 안철수로 대변되는 새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갈망이 커져 전동평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전 당선자는 "통합과 화합으로 하나 된 영암을 만들어야 한다는 군민들의 강력한 요구 앞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군민이 군정의 주인이 되는 행정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영암=대성기자 dss@kwangju.co.kr



전동평 영암군수 당선자(왼쪽)와 부인 설혜영씨.

전 서울시의회의 의장...새정치 텃밭서 무소속 승리

이용부 보성군수

전 서울시의회의 의장인 이용부 후보가 고향인 보성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옷을 입은 현 정종태 군수를 꺾고 군수에 당선되는 파란을 연출했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지역인 보성에서 무소속이 군수로 뽑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의 가장 큰 승리 요인은 '사람'으로 분석됐다. 최연소 서울시의회의 의장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을 지내는 등 주로 서울에서 정치활동을 했던 그는 고향에서의 입지가 좁았다. 대신, 적극적으로 사람을 영입하면서 세를 불러나갔던 것이 승리의 디딤돌이 됐다.

이용부 당선자는 "공약으로 내건 살맛나는 보성, 돌아오는 보성, 머물고 싶은 보성을 지역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이용부 보성군수 당선자(왼쪽)와 부인 조혜숙씨.

전남 기초단체장 이색 당선자

뒤늦게 출마 선언... 3개월만에 역전 드라마 연출

김준성 영광군수

가난한 집안의 유복자로 태어나 양복을 만들며 자수성가 한 김준성 후보의 영광군수 당선 과정은 한 편의 드라마를 떠올리게 한다.

3선 당선에 확실시됐던 정기호 군수의 독주 속에서 대항마가 전혀 없는 선거구도였기 때문에 지난 3월 26일에 뒤늦게 출마 선언을 한 김 후보의 당선을 예측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정 군수의 단독 출마가 점쳐지던 시점에 김 후보의 출마 소식이 들렸고, 3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표밭을 뒤야 역전 드라마를 연출한 것이다.

위기를 느낀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도 이날엔 전남지사의 지원 유세 등을 통해 정 후보를 도왔지만 끝내 김 후보의 승리를 막지는 못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kwangju.co.kr



김준성 영광군수 당선자(오른쪽)와 부인 문중숙씨.

교사·국정원 간부 출신... DJ 정상회담 성사 주역

박홍률 목포시장

'호남정치 1번지'이자 전통적인 민주계 성향인 목포에서 이번이 일어났다. 애초 예상을 뒤엎고 무소속 박홍률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열 후보를 제치고 목포시장에 당선됐다.

특히 신안군수도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은 박우량 군수의 사퇴로 무소속이 어부지리 당선되면서 고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과 정치적 토대였던 신안·목포가 나란히 '무소속 지대'가 됐다.

박 당선자는 교사와 국정원 간부를 지내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이색 경력으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3000억원에 달하는 목포시 부채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간편한 시장, 깨끗한 시장, 청렴한 시장을 최우선 시장 방침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kwangju.co.kr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자(왼쪽)와 부인 정향숙씨.

남편-아내-남편 한가족 3번째 당선 '부부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현직 군수와 전직 '부부 군수'와의 대결로 이목이 집중됐던 장성군수 선거는 무소속 유두석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유두석 후보 부부는 남편-아내-남편이 번갈아 가며 군수 자리에 오르게 됐다.

선거 막판 불거진 김양수 군수 부인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결정적인 선거 변수였다.

검찰이 지난달 23일 남편 선거를 도와 달라며 손모씨에게 거액을 전달한 김 후보 부부 김모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면서 양측의 공방전은 극에 달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잃었던 유 후보는 상대 후보의 선거법 위반으로 다시 승기를 잡은 아이러니한 정치의 한 장면을 연출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kwangju.co.kr



유두석 장성군수 당선자(오른쪽)와 부인 이청씨.

신축원룸매매 (용봉)

용봉지구 미래로APT 입구코너 옆 (전대상대5분, 군산아구찜앞, 르까프매장뒤)

신축 4층 (1층 상가2칸, 4층 고급주택)

룸 21개 월수익 880만 (1년수익 1억500만)

E/V, 전면대리석, 벽돌시공 정남향, 준공완료 4층 주차하면서 월수익 수익성보장

매가 10억5천 (용3억 보2억 실투자 5억5천)

수익률 12%

(주)대신 010-6670-9800 / (062)952-5584

전대원룸매매(전대1분)

신축원룸 (전대정문1분, 전대후문1분)

신축 4층(1층점포, 4층고급주택) 룸12개 월수익 500만(1년 6천만) 매가 6억5천보3천 용1억2천

신축원룸 (전대정문1분)

신축 4층 준공완료, E/V완비 룸18개 월수익 750만(4층 주택) 매가12억보5천 용2억6천

신축원룸 (전대정문1분)

룸18개 1층 상가2칸 월수익 680만 매가8억보4천 용1억

용봉동 전대예술대후문

룸11개 월수익 400만 매가4억

나주 이창동 원룸

룸18개 월수익 550만 매가 3억8천보3천 용1억2천

상가임대

수원지구 상가3층 25평 (모아마트 상가앞, 신한은행 뒷) 보1천 월50만 E/V완비

수원지구 상가1층 18평(대방5차 후문) 보2천 월120만

전대사거리 1층점포 50평 보2천 월150만 6차선 도로인접

북구 우산동 1층 80평 보2천 월120만

토지매매(나주 산포면)

나주산포면 등수리 생산농지(투자적합) 920평 매가3억(용1억5천)

교환전문(상가, 토지)

원룸, 상가, APT, 토지 (1억~100억까지 교환합니다)

경매투자전문

경매투자해서 재산증식 하실분 (5천만~50억까지 물건) (APT, 상가, 토지, 공장, 원룸 등)

경매 같이 하실분 연락주세요. 062)521-1060

신축원룸임대

용봉동 용봉지구 미래로APT 코너 옆, 군산아구찜 앞 신축 4층 (엘리베이터 완비)

플옵센

32인치TV, 세, 냉, 예, 유선, 불박이, 신발장, 전체 무료

원룸 보200만 월30만 투룸 보300만 월42만

*입주자에 한하여 시은품 증정

명품 미래도빌 062)527-7600

상가매매 (수익성, 노후보장)

수원지구 신한은행뒷 모아엘가APT 5,000세대 밀집지역

4층건물 중 3층 85평 월수익 200만(1년 2400만) 매가3억5천(보3천 용2억5천) 실투자 7000만 수익률 13%

부영APT 7,000세대 앞 대상오션스파

8층건물 중 2층 62평(보1천 월80만) 매가1억7천 (용9000만 실투자7000만)

신안사거리에서 무등경기장 쪽

주택상가(1층상가, 2층주택) 매가4억2천(1층공실, 2층주거함) (전시관, 세차장, 공업사홍보 적합)

6층상가건물(목욕탕)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코너 월수익 600만 매가 8억5천보2억 용4억5천 직접운영하면서 월세수의 발생

신한 010-6832-9700 / (062)512-8080

오피스텔 매매 (원룸형, 투룸형)

쌍촌동 운천역 1번출구 2분

울수리,전자제품신규교체

①원룸형(10평) 매가3천4백

보200 월27만 용1000만 실투자2300만

②원룸형(12평) 매가3천5백

보200 월30만 용1000만실투자2300만

★2개매입시 총매가6천3백

월수익 57만(1년 680만)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47평 매가 1억5천 → 할인가 1억2천

보증금 1000 월70만용 7천만원

사무실 인테리어 완비

상무지구 오피스텔 3층

30평 매가 1억6천 → 할인가 1억4천

현대아파트 앞, 보증금 1000 월70만

(사무실, 학원, 연구실, 투자적합)